

오늘날을 호모-헌드레드(Homo-Hundred)시대라 한다. 호모-헌드레드는 90~100세까지 살아가는 인간을 말한다. 2009년 유엔(UN)에서 발간한 '세계인구 고령화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됐던 용어다. '호모-헌드레드'는 의학 기술 발달이나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UN은 2010년 기준으로 34만 3천 명인 전 세계 100세 이상 인구가 2050년에는 320만 명으로 10배 정도 증가할 거라 예측했다.

우리나라도 2012년에 2,386명이던 100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 가면 1만 명에 이를 거라 한다. 2040년에는 2만 명에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노화현상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등을 변경시킬 수는 있다. 즉, 생리적 노화의 지연이나 최소화를 통해 노화 과정을 수정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를 '노화 수정(aging modification)'이라 한다. 이처럼 '노화 수정'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장기간 유지하는 기술이 발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화 과정을 둔화시키는 현상을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라 한다.

성공적 노화는 자신과 다른 사람 모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우리 모두 위한 호모-헌드레드 대책 필요

두를 만족시키는 수준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안녕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런데 노화만 막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에이징 웰(aging well)' 혹은 웰 에이징(well aging)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노화'가 나타내는 지표는 '수명, 건강,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 자아존중감' 등을 말한다. 때문에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일단 건강해야 한다. 만약 치매 환자 상태 또는 콧줄을 달고서 인지능력도 없이 단지 생명만 연장되는 상황에서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선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인지능력(Cognitive Ability)이 있어야 한다. 인지능력은 정보처리, 문제 해결 학습, 기억, 언어 이해, 주의 집중 등과 같은 정신적 과정을 포함하는 능력을 말한다.

만약 인지능력이 부족하면 정보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집중도 잘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능력이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 속의 인간이다. 때문에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외톨이가 되기 쉬운 것이다. 이같은 부적 관계 형성은 삶을 피폐화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취업 등 각종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다.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제임스가 1890년대에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다. 자아존중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믿는 것이다. 거기에다 유능하고 긍정적인 존재라는 믿음도 함께 갖는다. 때문에 당당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호모-헌드레드(Homo-Hundred)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조건들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회적 주류에서 아웃사이드(outsider)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노인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의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호모-헌드레드' 시대에 걸맞은 조건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해 보는 사항은 아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들은 이런 사항들을 유념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하길 바란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허위 112신고, 공공재를 낭비하는 범죄행위

112신고는 범죄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성격을 가져 누구나 긴급상황에 신고할 수 있고 특정 개인이 배제되지 않으며, 한 사람이 112에 신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어들지 않는 서비스다. 이처럼 국민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지만 허위 신고나 불필요한 신고가 증가하면 경찰력이 낭비되고 긴급 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남지역 112 허위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단순 장난 신고를 넘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성 신고도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까지 초래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는 112신고를 장난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데, 이는 경찰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12신고는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재이므로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로 이를 남용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력 낭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범죄 피해를 당해 긴급히 112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군가의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112신고는 단순한 신고 전화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긴급 수단임을 명심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를 기대해본다.

구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팀장 황민재 경감

독자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화재는 바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2024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432건으로, 이는 전체 화재 건수의 약 18.7%를 차지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주방의 조리 중 불꽃, 식용유 과열, 가스누출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한번의 실수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화재 예방대책이 무엇보다 중

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조리 중 식용유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렵고, 오히려 물을 부을 경우 기름이 튀어 더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큼니다. 이러한 주방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자동화 산소화기와 K급 소화기입니다.

자동화 산소화기는 후드 내부 덕트 또는 열원 바로 위에 설치되는 소화설비로, 일정 온도(약 93~120℃)에 도달하면 유리가글

이 파손되면서 소화약제가 분사되어 불꽃을 빠르게 진압합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하지만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열원 상부 중심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후드 내부 1.2m 이내 위치하며 장애물 없이 불꽃에 직접 반응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K급 소화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로, 기름 위에 비누막과 같은 유막을 형성

해 재발화를 방지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음식점·급식소 등 조리 시설이 있는 모든 장소에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식당과 조리시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자동화 산소화기와 K급 소화기 설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방과 대비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강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과 박은주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음력 5월 4일)



48년생 딱 없는 고사도 정성으로 해야 한다. 60년생 친구가 아이나 어머니로 묻혀 보자. 72년생 들어도 못 들은 척 귀를 막아 내자. 84년생 애써 했던 고생 품삤도 못 받는 다. 96년생 달라하는 부탁 얼굴을 두껍게 하자.



51년생 구수한 냄새에 먹을 복이 가득하다. 63년생 절대 위험 엄고무 사유야 한다. 75년생 행운의 주인공 만세가 불려진다. 87년생 그나마 다행인 차선을 가져오자. 99년생 스승 같은 제자. 완속함이 더해진 다.



54년생 늦게 만난 인연 애들 참을 나뉘보자. 66년생 더불어 사는 세상 주고받아야 한다. 78년생 어려운 결정이 보람을 더해준다. 90년생 부족한 공부책에서 알아내자. 02년생 젊음이라 가능한 꿈을 만들어보자.



57년생 전세 역전 답답한 상황을 벗어난다. 69년생 화초리 드는 대신 골아내야 한다. 81년생 귀해진 대접 꽃기미에 올라보자. 93년생 단비 같은 성장강이 바다로 간다. 05년생 병행했던 초심 제자리를 찾아가자.



49년생 강개무랑 축하 박수를 받아보자. 61년생 계산은 손해여도 거래에 응해보자. 73년생 슬프게 흘린 눈물 보석이 되어 간다. 85년생 운명이 고심은 만능을 가져보자. 97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 낭패를 볼라본다.



52년생 노력하지 않았던 후회가 남겨진다. 64년생 평생의 반쪽이 손님처럼 찾아온다. 76년생 아슬프다 핀잔 반성문을 써보자. 88년생 남의 집 살이라도 열심해야 한다. 00년생 뭇난 책임 회피 관망에서 지워진다.



55년생 탄식도 한숨도 바람에 실어내자. 67년생 소신과 원칙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79년생 모두의 반대에도 갈 길을 재촉하자. 91년생 뼈뼋뼋 돌 실력 기초부터 다시 하자. 03년생 연민은 사랑으로 조금씩 변해간다.



58년생 애써 답답함으로 강정을 추스르자. 70년생 그만하라 인류 고분 고분 따라가자. 82년생 수서가 아니다. 번호표를 받아내자. 94년생 장조 차돌아나는 호사를 누리보자. 06년생 자꾸 무리는 고집. 적을 만들어낸다.



50년생 코끝이 정해지는 감동에 빠져보자. 62년생 미리 하는 조심까진 불도 다시 보자. 74년생 달콤한 유혹에 반들 보여보자. 86년생 최고의 숨겨 화려함을 뽐내보자. 98년생 얌아취도 부족한 재민을 들어보자.



53년생 인생한 지갑 관리 원망을 들어보자. 65년생 게으르면 손해 비싼 게을리자. 77년생 어지간히 좋아도 표정 관리해보자. 89년생 있는 그대로 진지함만 보여내자. 01년생 실패도 좌절도 곳곳하게 맞서보자.



56년생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간다. 68년생 산 넘고 물 건너면 목표가 보여진다. 80년생 시행착오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92년생 첫인상의 중요성 꾸미고 치장하자. 04년생 피할수 없는 승부 강하게 맞서보자.



47년생 수염이 석 자라도 아단을 들어보자. 59년생 아침 계획들을 실천에 옮겨보자. 71년생 심장이 역할도 기쁘게 해야 한다. 83년생 노심초사 기다림의 끝이 보여진다. 95년생 얼마나 잘하나 시험대에 올라보자.

광 전 매 일 신 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 송 암	발행인·대표이사 정 길 화
편집인 전 광 춘	편집국장 박 선 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경영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1부7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